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역 내에 무단 증축된 상가와 원룸 등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 이 지역 건축물의 경우 최고층수가 3층으로 제한돼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층 건축 허가 받고 4층 원룸·상가 영업

불법 증축 판치는 광산구

지자체 뒤늦게 단속... 신창동 일대 33곳 적발

광주 광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건물주들이 층수 제한을 무시한 채 무단 증축과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는 건축설계·감리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뒷잡만 지고 있다 뒤늦게 단속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광주시와 광산구청에 따르면 광산구 신창동·신가동·수완동 일대(면적 124만4천781㎡)는 지난 1997년 8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이 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관련 법규나 조례 등을 지켜야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로 구분된 건축물의 경우 최고층수가 3층으로 제한돼 있으며 1층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

율인 건폐율은 60% 이하,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비율인 용적률은 200%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창동 일대 일부 상가나 원룸들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긴 채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동 A 건물주는 지난해 10월 29일 광산구청에 최고층수 3층 등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설계사로 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은 뒤 4층을 무단증축해 사용 중이며, B 건물 주인도 규정에 맞게 건물을 지어 놓고 임의로 한 개 층을 더 올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에 신축중인 또 다른 상가도 설계도면상 3층으로 돼있고 지도·감독하는 감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4층으로 짓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건물들도 4층짜리 건물을 지

은 뒤 사용승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청은 건물주와 감리단에 문제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하다 뒤늦게야 단속에 나섰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감리자가 신축 건물 지도·관리를 하고 건축설계사 사용승인을 한 뒤 최종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 현장을 매번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광산구청은 이달들어 신창지구 일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33건(33개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무단증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날 말 까지 원상복구 또는 철거조치 하도록 했다. 건축법(제69조의 2 이행강제금 부과)상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무단 변경된 면적만큼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타르 피해 전남 어민들 특별법 촉구 집회

어제 국회의원앞서

영광·무안·신안 등 전남지역 어민들이 18일 타르 피해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벌였다.

영광과 무안, 신안지역 어민 1천

7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타르 피해에 대한 정부의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와 어민 생계 유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어민들은 특별법이 이날 중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19일 법사

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오후 4시까지 자진 해산했다.

한편 최근 열린 해양수산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대책회의에서는 현재 충남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양오염 영향조사' 용역에 전남 해역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했으며, 18일 현재 전남 3개 군 지역에 대한 긴급생계비는 40% 정도가 어민들에게 지급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금괴 변칙거래로 2조원대 탈세

검찰, 대기업 직원·도매업자 등 118명 기소·21명 수배

대기업 금거래 직원과 금도매업체 등이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을 변칙적으로 수출입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아 2조원대 전대미문의 국고를 축냈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한경표 부장검사)는 18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금지금 수입·도매·수출업체를 세워 금괴 등을 변칙거래해 부가세를 포탈하고 막대한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 조세포탈 등)로 7개 대기업과 종로 일대 4개 대형 금도매업체 및 500여개 중소기업체를 적발해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1명을 지명수배했다.

금지금(金地金)은 원재료 상태의 금괴 등을 일컫는 용어로, 2003년 7월부터 도매업자 등이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이를 공급하면 부가가세가 면제됐고 수출 또는 은행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거래 때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영세율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모씨 등 대형 금도매업체 사업자들은 수입업체→도매업체→'폭탄업체'→도매업체→수출업체로 이어지는 금지금 거래 라인

을 직접 만들거나 이에 가담해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함으로써 부가세를 포탈했으며 S사 전 금속집장 정모씨 등 7개 대기업 금거래 직원들도 회사의 막대한 자금력 등을 동원해 이들 거래에 끼어들어 총 2조원대에 이르는 부가세를 포탈했다.

이들은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살 때 부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영세율로 팔게 돼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금지금 유통구조에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노숙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넣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7435) 김장동



나주 금은방 절도범 공개 수배

경찰, 제보자에 포상

전남경찰청은 설날인 지난 7일 나주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18일 공개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은방 CCTV에 찍힌 용의자는 2명이며 이 가운데 한 명은 키 163cm가량의 40대 초·중반 남성으로, 하늘색 파카에 미색 바지·흰색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키 173cm가량의 30대 초·중반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설날 오전 7시20분

에서 오후 4시40분 사이에 나주시 이창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3천만~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훔친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제보자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보 전화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거나 전남지방경찰청 강력계 (062-607-2272) 또는 나주경찰서 형사과 (061-334-0112)로 신고하면 된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행불 40대 화물차 운전사 43일만에 숨진 채 발견

행방불명된 40대 화물차 운전사가 4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고흥경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컨테이너 하역장 인근 해상에서 25t 화물차 운전사 이모(44)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해상 구조단이 발견했다. 경찰은 이씨의 몸에 특별한 의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실족사 한 것이 아닌가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트럭·승합차 충돌 3명 사상

18일 오후 2시55분께 곡성군 임면읍 성리 앞 국도에서 나모(여·54)씨가 몰던 '87노48XX호' 1t 봉고 프런티어 트럭과 마주오던 나모(58)씨의 '95서38XX호' 그레이스 승합차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그레이스 승합차 운전자가 나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트럭 운전사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야산에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투견 도박

화순경찰, 일당 27명 붙잡아

인적이 드문 시골 야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전기까지 조달해가며 투견 도박을 벌이던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화순경찰은 17일 투견 도박을 벌인 정력이 있는 정씨 등 7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도주한 투견 도박 주최자 임모(50)씨와 나머지 도박 참여자들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6일 밤 11시45분께 화순군 남면 운산리 야산의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투견장에서 한 개

임에 1인당 10만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산을 깎아 비닐하우스를 지은 뒤 내부에 지름 5m·높이 1.2m 크기의 원형 투견 도박장을 설치해 놓고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가발전기를 설치해 비닐하우스 내 전등을 켤 뿐 아니라 난방까지 해왔으며, 주차장까지 설치해 놓고 손님을 끌어 모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급습할 당시 80여명이 투견 도박에 참여하거나 구경을 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천450만원과 투견 4마리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최준=조성수기자 css@

인터넷 범행수법 배워 도둑질

○인터넷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방법을 배워 그대로 범행에 옮긴 철부지 10대 청소년 3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18일 문구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광주 K 중 3년 유모(15)군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유군 등은 지난 달 16일 자정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 정모(여·40)씨의 S문구점에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14만원과 문구류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중학교 동창생들인 이들은 유리로 된 출입문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망치로 깨 잠금장치를 푼 뒤 침입했는데, 경찰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네이퍼에서 '유리에 청테이프를 붙일 경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고 진술.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주) 조이트레블

광주광역시 동구 동평로 3가 57번지 3층
대표전화 (062) 234-3222

신원 100㎡ (40평)	439,000
신원 120㎡ (45평)	449,000
신원 150㎡ (55평)	310,000
신원 180㎡ (65평)	349,000
신원 200㎡ (75평)	429,000
신원 250㎡ (95평)	489,000
신원 300㎡ (115평)	279,000

NEW 광주출발(대한항공)

정월특정 특급(5성급)호텔 사용기

상해 / 광주 / 불려(제주) / 광주	459,000
상해 / 광주 / 불려(제주) / 서울	599,000
상해 / 광주 / 불려(제주) / 서울	499,000

무안 ↔ 마곡

중국에서 파견된 마곡가 공은하는 마곡가! 무안 - 마곡 부동산행동 주주채워야 할 기회!

마곡가 마곡가 (100㎡)	649,000
마곡가 마곡가 (150㎡)	699,000
마곡가 마곡가 (200㎡)	199,000
마곡가 마곡가 (250㎡)	189,000